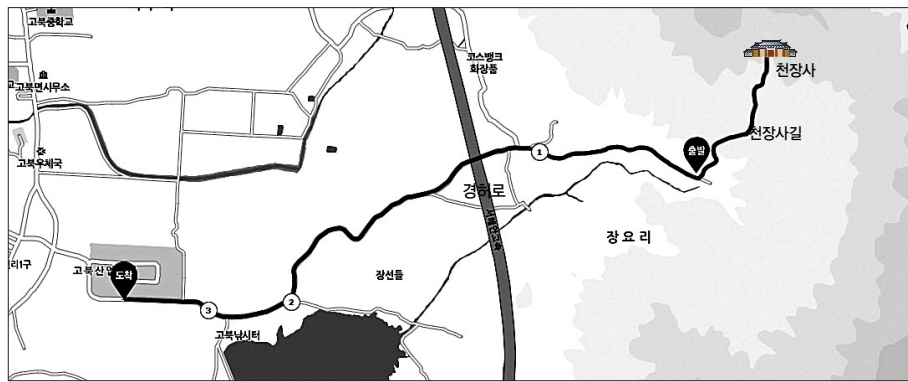


경허선사 기리는 '경허로' 탄생

서산 천장사길 3.7km 구간
"도로명 개정 어려워 명예도로로"
5월 경허 열반 102주기에 개막식
홍보 전개, 5년 뒤 일반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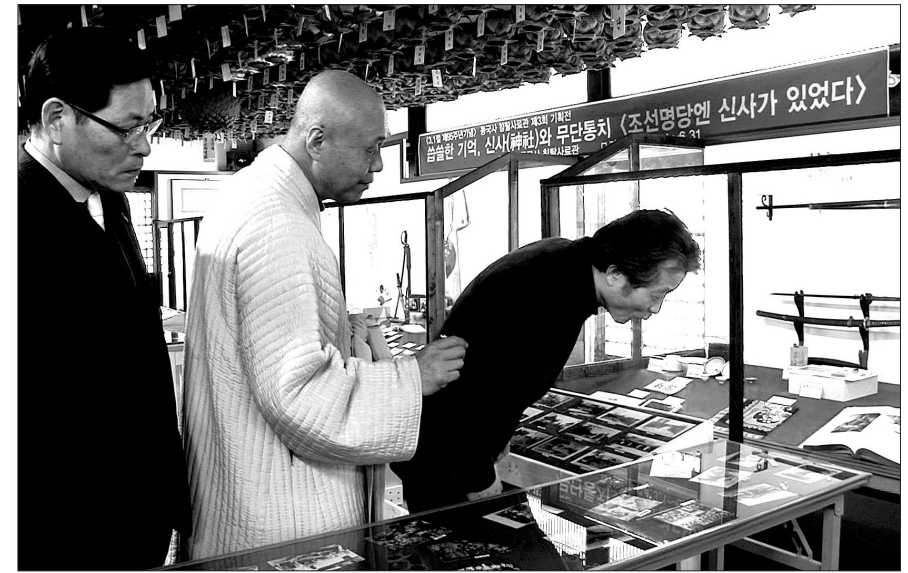
의 첫 명예도로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으로 지정된 '경허로'는 고북면 가구리에서 신송리에서 이르는 'ㄷ'자 모양의 6.7km에서 신송리부터 장요리 천장사 진입로와 연결된 3.8km 구간에 붙여졌다. '경허로'는 끝나는 지점이 천장사에 오르는 길인 '천장사길'과 맞닿아있다.



경허로 지도 사진. 천장사길에 맞닿은 3.7km 구간에 명예도로 형태로 붙여졌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2(명예도로명)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 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따라 지정된다.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일부에 명예도로명을 붙일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엔 법정 도로명과 함께 명예도로명이 표기된다. 사용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스님은 2013년 인근 주민 130여 명과 '스님관'로 지정된 천장사 진입로를 '경허로' '천장사로' 등으로 바꿔줄 것을 서산시청에 요구해 왔다. 도로명 개정은 절차가 까다롭기에 명예도로명 지정을 추진했

다. 명예도로는 주민동의 없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소위원회 결의로 결정된다.
허정 스님은 "서산시는 물론 충청도 최초 명예도로"라며 "경허 스님과 수월, 혜월, 만공 스님 등 제자들에게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허 선사 열반 102주기인 5월 '경허로' 제막식과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허 백일장' 등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5년 후 재심의 때까지 경허로를 널리 홍보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교관련 도로명 지정이 누락된 곳은 명예도로명 부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 동국사, 일제 침탈 특별 기획전 개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길)는 3월 10일 '삼승한 지역, 신사(神社)와 무단통치-조선명당엔 신사가 있었다'란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했다.
3·1절 96주년을 맞아 세 번째로 기획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동국사 종길스님의 보유하고 있는 5천여 점의 일제강점기 침탈 자료 중 엄선된 200여 점이 전시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한반도 전국에 걸친 명당터와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에 설치된 일본 신사의 사진과 조선에 무단 통치하기 위한 군산, 경찰 관련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종길 스님은 "일본 아베총리의 신사참배와 일본 각료들의 망언에 분개해서 일제의 조선 무단통치와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자료를 기획 전시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빼앗은 우리 역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불기 2558년 봉축일정 확정

전북 지역의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일정이 결정됐다.
전북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3월 9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직 구성과 세부 행사계획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봉축위원회는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의 주요도로에 가로연등을 내 걸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전홍

보탑을 세워 봉축행사를 전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분위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란 주제로 연등축제와 어린이 큰 잔치, 불교연합 합창제, 군부대 위문법회와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4월 11일부터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 전북불교발전과 지역발전 을 염원하는 기원탑이 봉축기간동안 불을 밝히게 되며 4월 18일에는 향토사단 연등제, 4월 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 잔치와 4월 20일에는 익산 송리예술회관에서 전북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4월 26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주요 봉축행사 일정 및 계획안

행사명	일시	장소
기원탑 점등식	4월 11일 19:00	전주 종합경기장
35사단 연등제	4월 18일 19:00	35사단
전북어린이 큰잔치	4월 19일 09:00	전주 덕진공원
전북 불교연합 합창제	4월 20일 19:00	익산 송리예술회관
연등축제	4월 26일 15:00	전주시청 노송광장
6탄약창 연등제	5월 3일 18:00	6탄약창 대강당
고창 불교문화 한마당(연등제)	5월 3일 10:00	고창 종합경기장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6일 11:00	각 사찰
청소년 모악축제	5월 24일 09:00	금산사 특설무대

사부대중 5천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개최되는 등 고창, 군산, 익산, 김제 등 각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연등축제가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임실 탄약창 호국장영사의 연등제와 위문법회가 개최되고 5월 24일에는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는 고창 실내 체육관에서 군민과 24교구 말사가 동참해 불교문화체험전과 부처님 오신날 봉축 한마당이 열린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주 금선암, 도법 스님 초청법회

열린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전법도량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은 3월 9일 극락보전에서 화경코리아100일 순례단장 도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눈이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요가족법회 불자들이 금선암 신행단체 임원,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동참해 도법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도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교의 존재 이유는 모든 생명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오늘날 한국 불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 불교의 위기는 외롭고 힘든 이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불교의 환골탈퇴만이 불



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성과 쇄신결사본부 총괄부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불교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금선암에서부터 결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선암은 3월 3일부터 '화경코리아 100일 순례기간' 동안 매일 극락보전에 있어 생명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쌀 나누기 행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지역 시민활동가 격려

광주지역 불교계가 지역사회단체활동가에게 쌀 나누기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인)는 지난 3월 19일 '7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광주전남지역 사찰과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자비의 쌀 1,600kg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개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불교단체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지원식은 광주전남환경연대 사무실에서 공동대표 행법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총

무국장 효진 스님을 비롯해 지원대상 단체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인사말, 소감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자비의 쌀은 지원식 후 각 단체에 전달이 됐다.
이날 전달받은 활동가들은 윤셋별(광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기홍(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창곤(광주전남녹색연합), 오춘화(광주불교교육원), 신수진(우리문화예술원) 등 광주전남지역 37개 단체 40명 활동가이다.
지원에 앞서 행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나누는 쌀이 희망의 포자가 되어 시



행법 스님과 효진 스님이 3월 9일 시민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민사회단체에 전달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비의 쌀"이란 인류의 가장 소중한 먹거리인 쌀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전남지역 사찰에서 부처님전에 정정한 마음으로 올린 쌀을 실시할만 후원받아 지역 활동가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행사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0,000kg이 넘는 쌀을 전달하고 있다.

완주 송광사, 출가열반절 특별정진기도

부처님 오신날, 성도절과 함께 불교의 4대 명절인 출가·열반절을 맞아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 특별 정진 기도 법회가 봉행됐다.
송광사는 3월 8~15일 '출가 열반절 경건주간'으로 정하고 독송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8일 지정장에서 봉행된 독송법회는 대승불교의 진리를 함축시킨 용수보살의 '근본중승'을 1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한 목소리로 근본중승을 독송했다.
법진 스님은 "출가 열반절의 특별정진 기간동안 근본중승 독송을 통해 부처님



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바로알고 수행하는 참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삶은
꿈가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품절]
- ▶ 신행요전 (법어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 (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 (한글/영어)